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예술계 '성폭력'과 '여성차별'에 대해 묻다

문화, 예술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구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니고 있다.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예술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인프라와 소비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세종연구원은 2019년 대전형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대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566명(여성 289명, 남성 27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호는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대전 여성 예술인의 고용형태와 예술노동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전 여성 예술인 73.7%,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

대전에서 전업으로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예술인은 응답자의 54.7%, 남성 56.2%로 여성보다 남성 전업이 1.5%p 높다. 프리랜서(일용직 포함)가 여성(40.8%), 남성(40.9%)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비정규직(여성 32.9%, 남성 30.9%), 정규직(여성 21.1%, 남성 15.4%), 고용주(여성 4.6%, 남성 9.4%) 순으로 나타났다.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경우,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이유로 여성은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이 37.3%로 가장 높고, 남성은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37.1%)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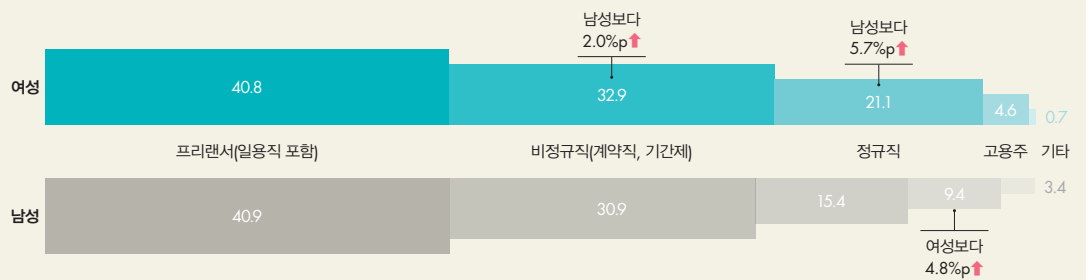
전업 예술인으로 예술분야 종사 여부

■ : 전업 예술인 ■ : 비전업 예술인(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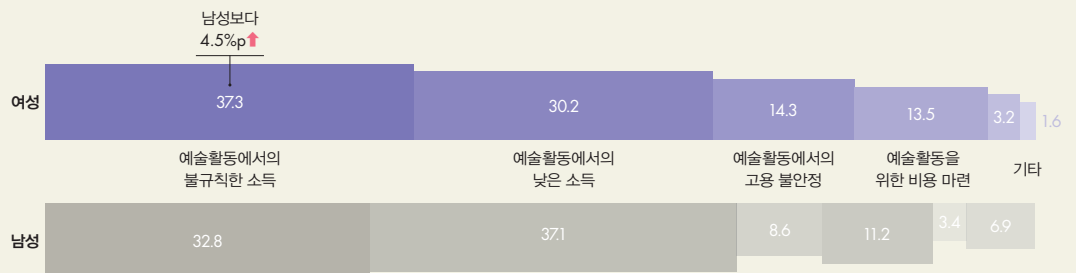
단위 : %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경우)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



남녀 모두 예술활동 수익 관련 부당대우 경험 높아

예술활동 중 경험한 부당대우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25.9%, 24.5%로 가장 많다. 그다음 '상당 기간 돈을 받지 못함'(여성 18.7%, 남성 24.1%),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여성 15.5%, 남성 17.6%), '예술창작비용의 불리한 공제'(여성 14.0%, 남성 16.1%), '비인격적인 처우'(여성 10.8%, 남성 13.4%),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여성 7.2%, 남성 5.7%) 순이다.

부당대우 경험

단위 : %



- '없다'와 '모름'은 제외함
- 출처: 대전문화재단·대전세종연구원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원자료

같은 지위보다 '성폭력은 위계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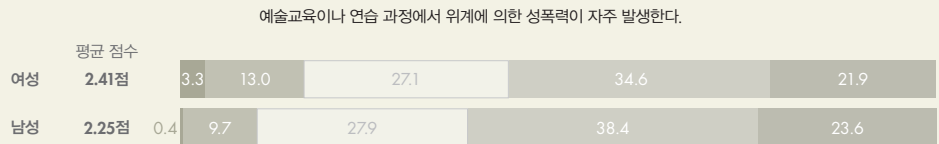
예술계 내부 성폭력 문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세 가지 항목별로 여성과 남성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t=2.441*(.015)]에서만 평균 차이를 보인다.

예술계 성폭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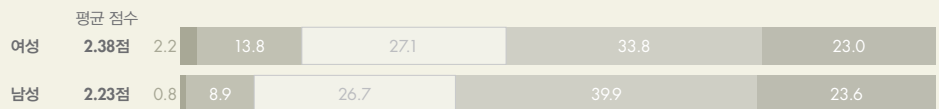
'예술교육이나 연습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여성 2.41점, 남성 2.25점으로 가장 높다.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여성 2.38점, 남성 2.23점으로 나타났고,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은 여성 2.20점, 남성 2.02점으로 차이가 가장 크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점수가 높다.

■ : 매우 그렇다 ■ : 그렇다 □ : 보통 ■ : 그렇지 않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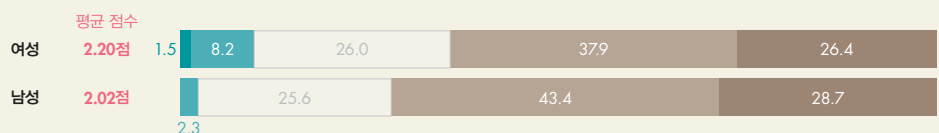
단위 : %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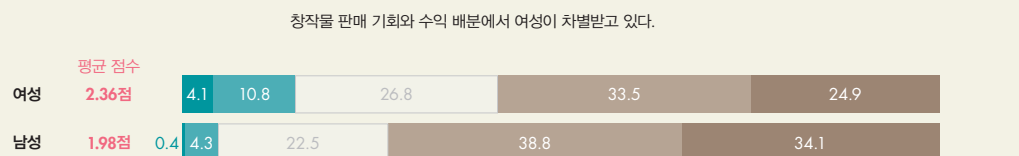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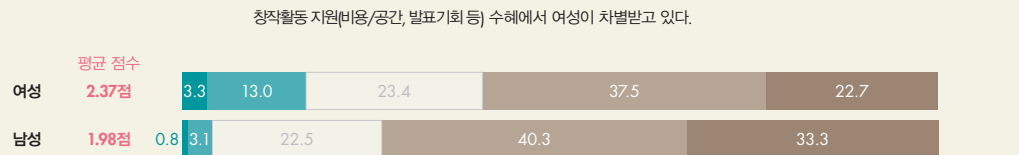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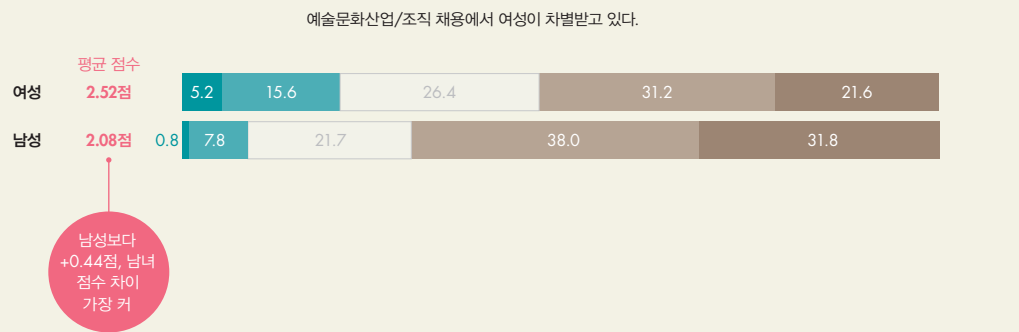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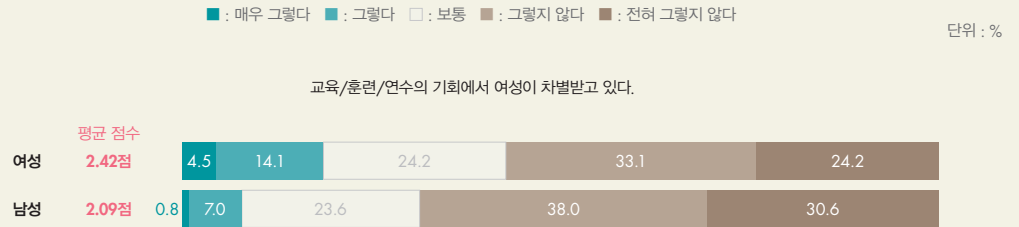
-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을 합해 '그렇지 않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을 합해 '그렇다'로 해석함
- 점수는 5점 척도로 평균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발생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p<.05, **p<.01, ***p<.001
- 출처: 대전문화재단·대전세종연구원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원자료

**‘채용에서 여성차별 있다’
여성 2.52점, 성별 점수
차이가장 커**

예술계 여성차별에 대해 네 가지 항목별로 남녀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는 T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훈련/연수의 기회’[t=3.571***(.000)],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t=4.790***(.000)], ‘창작활동 지원 수혜’[t=4.610***(.000)],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t=4.364***(.000)]에서 모두 평균 차이를 보인다.

예술계 여성차별 수준

여성은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 여성 차별’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남성은 ‘교육/훈련/연수의 기회에서 여성 차별’이 가장 높다. 성별 점수 차이 순으로 살펴보면,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 여성차별’이 여성 2.52점(남성보다 +0.44점), 남성 2.08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어 ‘창작활동 지원 수혜에서 여성차별’(여성이 남성보다 +0.39점),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에서 여성차별’(여성이 남성보다 +0.38점), ‘교육/훈련/연수의 기회에서 여성차별’(여성이 남성보다 +0.33점) 순으로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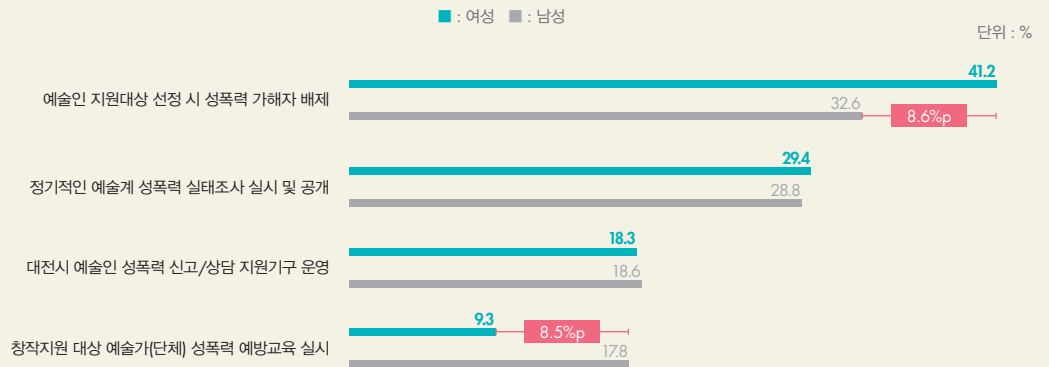
-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을 합해 ‘그렇지 않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을 합해 ‘그렇다’로 해석함
- 점수는 5점 척도로 평균한 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p<.05, **p<.01, ***p<.001
- 출처: 대전문화재단·대전세종연구원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원자료

대전 여성 예술인 41.2%,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해야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10.177*(.038)]를 보인다. 여성 예술인이 꼽은 방안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은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41.2%)다. 이는 남성(32.6%)보다 8.6%p 높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 지원센터 인지 여부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여성(90.7%)과 남성(86.4%) 모두 압도적으로 높다.

- 기타 항목 비율은 제외함
- *p<.05, **p<.01, ***p<.001
- 1)4점 척도로 '전혀 모른다'와 '잘알지 못한다'의 비율을 합해 '알지 못한다'로, '잘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의 비율을 합해 '알고 있다'로 분류·해석함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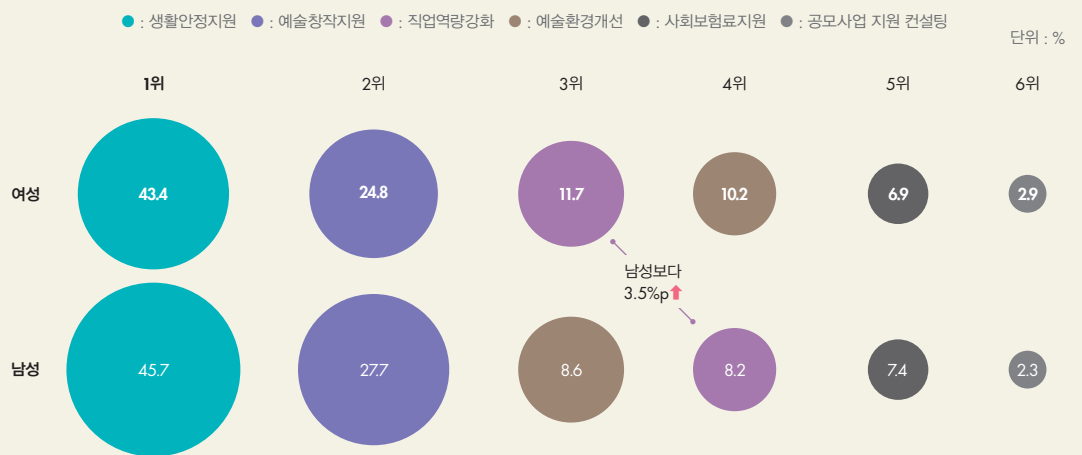


여성 예술인 '직업역량강화' 요구, 남성보다 3.5%p 높아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생활안정지원'(여성 43.4%, 남성 45.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 '예술창작지원'(여성 24.8%, 남성 27.7%)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러나 3순위부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성은 '직업역량강화'(11.7%), 남성은 '예술환경개선'(8.6%)이 뒤이어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 사업

- 1순위만을 집계함
- ① 생활안정지원: 창작준비금지원, 보육지원 등 ② 예술창작지원: 창작 및 발표 활동지원 등 ③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 지원 및 교육이용권지원 등 ④ 예술환경개선: 예술인 신문고, 법률 및 심리상담 등 ⑤ 사회보험료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지원 등 ⑥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법, 회계처리 등
- 출처: 대전문화재단·대전세종연구원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원자료



우리가 마주한 재난, 코로나19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선 여자들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코로나19 대응방안' 시민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온라인 토크콘서트에 초대합니다.

- 개최일시** 10월 7일(수) 10시
- Talkers** 김경희(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공혜영, 권순지, 엄숙희, 윤민영, 임다은
- 참여방법** sgnow@dsi.re.kr 참여 신청 / 행사 시작 30분 전 메일로 링크 발송
- 신청기한** 10월 5일(월) 18시까지
- 신청서식** 이름, 휴대번호 기재(참여자 확인 및 기프트카드 제공용)

2020년 제4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9회) 맛있는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조직 내 성폭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발제자** 정혜선_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 일시** 2020년 10월 30일(금) 10시 30분
-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2층 대회의실